요나의 기도(욘 1:17-2:10)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 이해

김상래(삼육대)

1. 들어가면서

요나서는 4개의 장에 48개의 절로 구성된 참 작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구약의 어느 책에도 뒤지지 않는다.[1] 우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는 기사부터 흥미 있는 대중적 논쟁 꺼리이다.[2] 이 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학문적 논쟁은 이 책

1) 이 소논문 주제에 대한 본인의 관심은 2005년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최된 학술 세미나 참가하여 관련 논문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 틈틈이 숙고하던 이 주제를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은 특별한 동기가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사고 후 온 국민은 실종자들에게 요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였다. 본인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2) CBS는 2014년 1월 22일부터 '낸시랭의 신학 펀치'라는 제목의 대중 신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중 3월 12일 방영에서 요나가 어떻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했느냐는 질문에 패널로 나온 개신대학원대학교 김구원 교수가 요나서의 독법으로 문자적인 사실보다 문학적인 읽기를 통해 저자가 의도한 메시지를 찾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 이후 몇몇 신학자들이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김 교수의 설명을 반박

www.kci.go.kr

의 장르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책의 장르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즉 역사적 기록[3]으로, 선지자적 전설로,[4] 교훈적 스토리로,[5] 유대 미드라쉬로,[6] 알레고리로,[7] 소설로,[8] 비유로,[9] 풍자로,[10] 비극으로,[11] 코미디로[12] 패러디로,[13] 광대극으로,[14] 그리고 예언으로[15] 간주하면서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장르에 대한 이런 상이한 견해들에 따라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법이나 분석법이 제시된다. 즉 역사적 접근, 신비적 접근, 유대교적 접근, 기독교적 접근, 종교사적 접근, 철학적 접근, 논증적 접근, 대화 분석, 종교 심리적 분석, 표상학적

하면서 요나 기적의 역사성을 둘러싼 논쟁이 한동안 전개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3) 비커맨(E. J. Bickerman, *Four Strange Books of the Bible: Jonah, Daniel, Koheleth, Esther* [NY: Schocken Books, 1967], 4.)에 의하면 1956년 가톨릭 백과사전과 1962년의 프로테스탄트 성경사전이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T. D. Alexander, "Jonah and Genre", *Tyndale Bulletin* 36 (1985), 35–59.

4) 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74), 403–406.

5) T. E. Fretheim, *The Message of Jonah: A Theologic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7), 96–98.

6) P. L. Trible, "*Studies in the Book of Jonah*"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63).

7) A. R. Johnson, "Jonah 2.3–10: A Study in Cultic Phantasy," H. H. Rowley(ed.),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inburgh: T. & T. Clark, 1957), 82–102.

8) M. E. Andrew, "Gattung and Intention of the Book of Jonah", *Orientalia* 1 (1967), 13–18, 78–85. Andrew는 1–3장은 소설로 4장은 설교로 간주하였다.

9) R. B. Y. Scott, "The Sign of Jonah", *Interpretation* 19 (1965), 16–25.

10) J. C. Holbert, "Deliverance Belongs to Yahweh!: Satire in the Book of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1 (1981), 59–81; J. S. Ackerman, "Satire and Symbolism in the Song of Jonah", B. Halpern & J. D. Levenson (eds.),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213–46; J. A. Miles, "Laughing at the Bible: Jonah as Parody", *Jewish Quarterly Review* 65 (1974–1975), 168–81.

11) B. L. Woodard, "Death in Life: The Book of Jonah and Biblical Tragedy", *Grace Theological Journal* 11 (1991), 3–16.

12) J. Mather, "The Comic Art of the Book of Jonah", *Soundings* 65 (1982), 280–91.

13) A. J. Band, "Swallowing Jonah: The Eclipse of Parody", *Proof Texts* 10 (1990), 177–95; M. Orth, "Genre in Jonah: The Effects of Parody in the Book of Jonah," W. W. Hallo, *et al* (eds.), *The Bible in the Light of Cuneiform Literature* (ANETS 8; Lewiston: Edwin Mellen, 1990), 257–81.

14) T. Eagleton, "J. L. Austin and the Book of Jonah," Regina M. Schwartz (ed.), *The Book and the Text: The Bible and Literary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90), 231–36.

15) Th. M. Bolin, *Freedom beyond Forgiveness: The Book of Jonah Re-examined* (JSOTSup, 23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66.

www.kci.go.kr

분석, 문학적 분석, 수비학적 독법 등이 사용되었다.[16] 이외에 독자반응 분석법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크라우치(W. B. Crouch)는 주인공 요나의 운명은 독자들이 완성하도록 책을 끝맺지 않았다고 하였다.[17]

이 책의 장르와 해석학적 접근법에 대한 논란과 달리 이 책의 주제에 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워쇼(T. S. Warshaw)는 요나서가 '야훼의 자비'와 '보편주의'라는 두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18]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에머슨(G. I. Emmerson)은 선교적 관점에서 이 책을 읽는 것은 후대의 견해를 반영한 독법이라고 주장하였다.[19] 클레멘츠(R. E. Clements)도 이 책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책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주장하며 선교적 관점의 해석을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라고 제시하였다.[20] 브레너(A. Brenner)도 비슷하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긴장은 보편주의와 선민주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관한 것이며 이 갈등이 "이 스토리의 근본 문제"[21]라고 하였다. 이렇게 요나서를 둘러싼 학문적 논

16) 요나서의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법과 분석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윗글, 13–67. D. L. Christensen, "Narrative Poe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nah," Elaine R. Follis (ed.), *Directions in Biblical Hebrew Poetry* (JSOTSup 40; Sheffield: JSOT Press, 1987), 29–48; E. Levine, "Jonah as a Philosophical Book", *Zeitschrift f 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6 (1984), 235–45; R. F. Person, Jr., *In Conversation with Jonah: Conversation Analysis, Literary Criticism, and the Book of Jonah* (JSOTSup 22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심리적 독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F. Zimmerman,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Book of Jonah", *Judaism* 40 (1991), 58–89.

17) W. B. Crouch, "To Question an End, to End a Question: Opening the Closure of the Book of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2 (1994), 101–12.

18) Th. S. Warshaw, "The Book of Jonah", Gros Louis, *et al* (eds.),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K. R. R., *et al* (eds.),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191–207 (191).

19) G. I. Emmerson, "Another Look at the Book of Jonah", *Expository Times* 88 (1976), 86–87.

20) R. E. Clements,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G. W. Anderson, *et al* (eds.), *Congress Volume: Edinburgh 1974* (VTSup, 28; Leiden: E. J. Brill, 1975), 16–28 (28).

21) A. Brenner, "Jonah's Poem out of and within its Context", Ph. R. Davies & D. J. A. Clines (ed.),

www.kci.go.kr

쟁은 다양하고 뜨겁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런 쟁점들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그 쟁점들은 각각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방대한 연구 주제이다. 이런 쟁점을 소개하는 것은 다만 그만큼 요나서라는 책 자체가 학자들에게 "끊임없는 학문적 매력"[22]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나서에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특이한 본문 때문이다. 불과 4장으로 구성된 이 작은 책에서 한 장이 나머지 본문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흔히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구분되는 요나서 2장(MT 1:17-2:10)이다.[23] 이 장이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문학적 형식이 나머지 장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2장의 문학적 형식은 운문형의 기도 시이지만 나머지 장들은 모두 산문형 내러티브이다.[24] 요나의 기도 자체는 2장 2-9절에 나타나 있다. 이 기도가 야훼가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1:17a)는 구절과 그 물고기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였다"(2:10)는 구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이 두 내러티브가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인클루지오(inclusio) 즉 '봉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고로 2장은 뚜렷하게 자체적으로 구별되는 문단을 구성하고 있다.[25]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JSOTSup 144; Sheffield: JSOT Press, 1993), 183–92 (191).

22) D. F. Payne, "Jonah from the Perspective of its Audienc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3 (1979), 3–12.

23) 맛소라 본문(MT)에 따른 요나서 2장은 지금 한글 역본의 1장 17절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역본의 2장 10절은 MT의 2장 11절이다. 본 논고에서도 맛소라 본문에 따라 2장의 범위를 1장 17에서 2장 10절로 한다. 그러나 장절의 표기는 한글 역본에 따라 한다.

24) 이것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de Hoop, "The Book of Jonah as Poetry: An Analysis of Jonah 1:1–16", W. van der Meer & J. C. de Moor (ed.), *The Structural Analysis of Biblical and Canaanite Poetry* (JSOTSup 74; Sheffield: JSOT Press, 1988), 156–171, 특히 157.

25) J. T. Walsh, "Jonah 2.3–10: A Rhetorical Critical Study", *Biblica* 63 (1982), 219–29 (219).

www.kci.go.kr

둘째, 많은 언어적-문법적 표현들과 신학적 내용들이 다른 장에 나타나는 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장 3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의지로 야훼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러나 2장 4절에서 그는 "내어 쫓겨났다"고 하였다. 1장 12절과 15절에서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져달라고 자원하였다. 그러나 2장 3절에서는 야훼가 그를 던졌다고 한다. 1장 15-17절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직후에 물고기에 삼켜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2장 4-7절에는 그의 익사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1장에서 선원들은 비록 이방인 다신론자들이지만(1:5) 야훼께 기도하고 희생을 드리고 서원하는 자들로 묘사된다(1:14-16). 그러나 2장 8절에서 그들은 헛된 우상숭배자로 경멸된다. 전체 내용으로 보면 1장에서 그는 니느웨로 가기보다 죽음을 택하였지만 2장의 기도에서는 죽음에서 건져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외에도 산문에 자주 등장하는 '큰'(1:2, 12, 16; 3:2, 3; 4:11)이나 '악'(1:2; 3:8, 10)'과 같은 단어가 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26]

셋째, 묘사되어 있는 주인공 요나의 모습이 나머지 장에 묘사된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야훼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으로 보일 때 도망하였다(1:2-3). 풍랑이 일었을 때 기도하기보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하였다(1:9-12).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고 그로 인해 찬양을 드려야 할 때에 오히려 화를 냈다(4장). 이렇게 그는 나머지 장에서는 불순종하고,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 그가 2장에서는 갑자기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것도 1장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애가나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26) 박철우에 의하면 는 요나서 2장 3-10절은 이방에 대한 무원칙적 구원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그는 "하나님은 세상만민('니느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요나의 기도'에 "니느웨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박철우, "MT 소예언서의 삼단양식적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 신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7집 (2013년 3월 31일), 208-237.

www.kci.go.kr

이다. 요나에 대한 이런 2장의 묘사에 대해 페인(R. Payne)은 "상황과 조화되지 않는다"[27]고 하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인공의 이런 모습을 근거로 요나서 자체를 '아이러니의 책'[28] 혹은 '놀라움의 책'[29]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2장은 분명히 요나서 전체에서 돌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학자들은 2장에 내포된 이러한 의외성 혹은 부적절성에 매력을 느낀다. 그리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2장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은 결국 2장에 묘사된 주인공 요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해석학적 도전을 던져준다. 요나에 대한 묘사들이 왜 2장에서만 다른가? 이것이 주인공 요나에 대해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요나가 드린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탐색한 국내의 한 연구는 2장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에 대해 첫째, 그가 상황을 오해하였고, 둘째 그는 회개 없이 교만한 감사를 드렸으며, 셋째 편협한 선민사상으로 이방인과 자신을 구분하였다고 보았다.[30] 본 논고도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그런 이해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

27) R. Payne, "The Prophet Jonah: Reluctant Messenger and Intercessor", *Expository Times* 100 (1989), 131–34.

28) J. S. Ackerman, 윗글, 214–15.

29) A. Jon Hauser, "Jonah: In Pursuit of the Dov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 (1985), 21–37.

30) 조휘, "문학적 정황에서 읽는 요나의 기도(욘 1:17–2:10)", *Hermeneia Today* (2005 봄 30호), 18–38. 2005년 봄 본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최된 학술 세미나 참가하여 저자가 발표하는 논문을 직접 듣는 특권을 가졌다. 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지적인 도전을 준 저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논고는 당시에 받은 도전들을 놓고 오랜 기간 숙고한 열매이다.

www.kci.go.kr

2. 2장의 진정성에 관한 논쟁

요나서 2장을 분석함에 있어 본 논고는 본문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최종본'에 대한 문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31] 이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문제를 제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역사비평적 방법론이 제기하는 원전 문제도, 전통적인 단일저작설 문제도 그러하다. 그저 현대 독자로서 '지금의 최종본 그대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본문을 "묘사된 그대로 생생하게"[32]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독법에서는 본문을 통시적(通時的)으로 읽지 않고 공시적(共時的)으로 읽는다.[33] 데이비스(P. Davis)의 말과 같이 학문적 방법론은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34] 한 연구물 안에서 그 용법의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구태여 그 정당성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원전비평학자들은 2장의 진정성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볼린(T. M. Bolin)에 의하면 초기 역사비평학자들 중에서 2장을 나머지 책에서 분리한 첫 학자는 뮐러(J. G. A. M ller)이다.[35] 뮐러는 2장의 시가 기원전 8세기에 먼저 기록되었고 나머지 산문들이 포로기에 첨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36] 살터스(R. B. Salters)에 의하면 뮐러가 제안한 이 순서를 뒤집어 산문이 먼저 기록되고 시가 후대에 첨

---

31) 이러한 접근법을 구약 본문 해석에 적용한 연구로는 본인의 다음 연구들을 참조하라. 김상래, "아이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 만인가?—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46집 (2012년 12월 31일), 72–96.

32) P. Kissling, *Reliable Characters in the Primary History: Profiles of Moses, Joshua, Elijah and Elisha* (JSOTSup 2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12.

33) 통시적 접근과 공시적 접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J. Barr, 'The Synchronic or Diachronic and the Historical: A Triangular Relationship?' in Moor (ed.), *Synchronic or Diachronic?*, 1–14; A. Sommerfelt, *Diachronic and Synchronic Aspects of Language* (Oslo: Mouton & CoS–Gravenhage, 1962).

34) P. R. Davies, *In Search of 'Ancient Israel'* (JSOTSup, 148; Sheffield: JSOT Press, 1992), 13.

35) Th. M. Bolin, 윗글, 98.

36) J. G. A. M ller, "Jona: Eine moralische Erz hlung," *Memorabilien* (Leipzig: Cruisius, 1794), VI, 142.

www.kci.go.kr

가된다는 것으로 그 순서를 표준화하면서 후대 첨가설을 주장한 첫 학자가 드 베테(W. De Wette)이다.[37]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그런 주장의 대열에 동참하였다.[38] 그들의 결론은 "기도를 포함시키든 빼든 내러티브의 핵심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39]는 것이고, 더 나아가 2장을 삭제하는 것이 요나서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더 자연스럽다"[40]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이 시가 처음부터 원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다양한 논증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랜즈(G. M. Landes)는 요나서 2장의 후대 첨가설은 아무런 외적 증거가 없으므로 2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전적으로 해석학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41] 그는 요나서는 '회개'라는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1-2장은 요나와 사공들을 호의적으로 비교하고 3-4장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기에 책 전체가 처음부터 그 형태 그대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42] 그의 뒤를 이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로 2장의 진정성을 옹호하였다.[43]

---

37) R. B. Salters, *Jonah & Lamentations* (Sheffield: JSOT Press, 1974), 30.

38)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J. Smart, "The Book of Jonah", *Interpreter's Bible*, vol.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J. A. Bewer,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ICC (Edinburgh: T. & T. Clark, 1961); W. Neil, "Jonah, the book", *IDB*, II (ed. G.A. Buttrick; Nashville: Abingdon, 1962), 964–67; J. Da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nah", *Oudtestamentische Studi n* 26 (1990), 32–47; C. B. Houk, "Linguistic Pattern in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7 (1998), 81–102.

39) W. Neil, "Jonah", 967.

40) P. Trible, 윗글, 239–41. 그의 논문은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order no. 65–7479로 접근할 수 있다.

41) G. M. Landes, "The Kerygma of the Book of Jonah", *Interpretation* 21 (1967), 3–31.

42) G. M. Landes, "The Canonical Approach to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Prodigy and Problem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0 (1980), 32–39.

43)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J. Rosenberg, "Jonah and the Prophetic Vocation", *Response* 22 (1974), 23–26; L. C. Allen,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NICOT; Grands Rapids: Eerdmans, 1976), 175–235; D. L. Christensen, "The Song of Jonah: A Metrical Analy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 (1985), 217–31; K. M. Craig Jr., "The Poetics of the Book of Jonah: Toward an Understanding of Narrative Strategy" (Ph. D. dissertation, Southern

www.kci.go.kr

2장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개된 여러 논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는 1장과 2장 사이의 언어, 주제, 운율 등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장 6절에서 선원들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말이 2장 2절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삽더니"로 연결된다는 그런 방식이다.[44] 또 등장하는 용어가 같은 점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내려가니', '부르시니' '인자' '맹세' '제사' 등이다. 특별히 크리스텐슨(D. L. Christensen)은 1장의 사공들과 2장의 요나에 대한 묘사가 위기상황(1:4; 2:4), 위기에 대한 반응(1:14; 2:3), 기도에 대한 야훼의 반응(1:15b; 2:7b), 결론적 반응(1:16; 2:10)과 같은 방식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45] 둘째는 요나서 전체의 구도 안에서 2장의 진정성을 논증하는 방식이다. 즉 요나서 전체를 문학적 구조로 볼 때,[46] 4개의 장 전체에 흐르는 야훼와 요나 사이의 대화 패턴으로 볼 때,[47] 풍자나 패러디 등 문학적 기능으로서의 전체 이야기의 구도에서 볼 때,[48] 2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에 틀림없다는 그런 논증이다. 이 논증에서는 각 장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입장은 2장을 제외시키면 책 전체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콘(G. H. Cohn)의 말로 대변된다.[49]

2장이 후대의 첨가라는 주장이 엄존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외적 증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2장이 없는 사본이 발견된 적도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9). 특히 제4장을 참조하라. 요나서의 연구 동향에 관한 정보로는 그의 논문 "Jonah in Recent Research", *Currents in Research* 7 (1999), 97–118를 참조하라.

44) J. Limberg, *Jon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3), 32.

45) D. L. Christensen, 윗글, 217–31 (특히, 219–20).

46) R. B. Chisholm, Jr. *Handbook on the Prophets* (Grand Rapids: Baker, 2002), 408–409; W. VanGemer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147–148. 이 두 사람은 모두 2장 2–9과 4장 2–3절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벵거메런은 2장 2–9절은 '요나의 기도'로 4장 2–3절은 '요나의 애가'로 불렀다.

47) K. M. Craig, Jr. *A Poetics of Jonah*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3), 73–82.

48) A. Brenner, 윗글, 189; J. S. Ackerman, 윗글, 219.

49) G. H. Cohn, "Book of Jonah", *Encyclopedia Judaica* X, 170–74 (171).

www.kci.go.kr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전적으로 "해석학적 문제"라는 랜즈의 말은 정확한 지적이다. 심지어 후대 삽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 모든 통일성을 이룬다면 그건 라코크(A. LaCocque)의 말과 같이 마지막 편집자의 '천재적인 발상'(stroke of genius)이 될 것이다.[50] 이런 경향들을 고려할 때 2장을 최종본의 문학적 정황에서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할만한 학문적 가치가 있다.

3.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에 대한 분석

이제 본 논고의 주관심사인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전에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시의 근본 내용인 '감사'의 적절성 문제이다. 2장의 기도가 '감사기도'인 것은 분명하다. 본문 자체가 그것을 확인한다.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9절)이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감사 기도가 언급되는 것이 정황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51] 이때는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다.[52] 어떤 원전 비평학자들은 이런 이유로도 2장을 후대 삽입으로 보고 아예 원전에서 제거해버린다.

다른 이들은 본문의 변경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뷰어(J. A. Bewer)는 구원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에 2장 2-9절의 기도는 10절 이후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53] 그러나 그의 주장

50) A. LaCocque & P. E. Lacocque, *Jonah: A Psycho-Religious Approach to the Prophet*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0), 96.

51) P. Trible,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62.

52) B.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84.

53) J. A. Bewer, 윗글, 21–24. 그는 이렇게 재배치되어야 기도에 나타나는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2절), "내 생

www.kci.go.kr

은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의 절박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바다에 떨어진 사람이 심지어 거북이 등에 타게 되는 기적을 만나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정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된다. 바다에서 죽음을 맞게 된 사람이 육지에 이르려면 익사의 위기를 넘겨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감사의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 애커맨(J. S. Ackerman)의 해석은 따로 소개할 만큼 특이하다. 그는 이 기도에는 요나의 "잠재의식적인 죽음의 희망"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즉, 요나가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의 희망대로 곧 죽을 수 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며 그런 상황에서 바라 본 '성전'은 '죽음의 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54] 그러나 이는 전혀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기도는 죽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가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시이다. 만일 요나가 참으로 죽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익사의 기회를 '고난'(1절)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또 물고기[55]가 그를 육지에 토하여 내었을 때 화를 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을 때 순종하였다.

여기에 감사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그가 1장에서 스스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1:12)고 하였다는 것 때문이다. 즉 스스로 죽기를 택한 사람이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감

명을 건지셨다"(6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7절) 등의 완료형 동사 시제가 뜻이 통하게 된다고 본다.

54) J. S. Ackerman, 윗글, 236–238.

55) 요나에는 물고기가 세 번 언급된다. 그런데 1장 17절과 2장 10절에 언급되는 물고기는 남성 명사인 다그(*d g*)이고 2장 1절의 물고기는 여성명사인 다가(*d g*)이다. 문법적으로만 보면 요나가 수컷 물고기에 삼켰다가 암컷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컷 물고기에 의해 육지에 나온 것이 된다. 이러한 성(gender)의 불일치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있다. 첫째는 본문에서 두 번째의 물고기 언급을 삭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두 물고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처음 물고기가 요나에게 너무 편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새끼 물고기로 가득 차 있는 암 물고기 배로 요나를 옮겼다고 해석한다. 셋째는 *d g* 를 필사자의 실수로 보는 것이다. 넷째는 성이 전체 이야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되 남성형은 주로 단일 개체를 가리키고, 여성형은 전체 집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등이다. J. M. Sasson,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London: Doubleday, 1990), 155–56.

www.kci.go.kr

사할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반대라면 회개하거나 애통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요나가 이제 막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본문의 문학적 정황과 죽음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논리이다. 심지어 죽음을 자처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제로는 "죽기를 무서워"(히 2:15) 한다. 사람은 막상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며 어떤 연유로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심지어 그것이 서서히 죽어가는 익사의 과정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람의 심리가 초지일관 논리적일 수 있는가? 이 장면에서 분명히 요나는 그를 삼킨 '물고기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56] 물고기는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이다. 프레트하임(T. E. Fretheim)의 표현대로 '염수(鹽水) 택시'(salt-water taxi)[57]이다. 요나는 그가 바다로 던져진 이후 "스올의 뱃속"(2:2)같은 해저로 가라앉으며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 지금 "물고기 뱃속"(2:1)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때에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요나의 감사는 인정하되, 그 감사의 내용이나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홀버트(J. C. Holbert)는 여기에 요나의 '위선'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았다.[58] 또 다른 이는 2장에 나타난 요나는 상황을 오해하였고, 교만한 기도를 하였으며, 이방인에 대한 편협한 선민사상을 드러내었다고 분석하였다.[59] 과연 그런가? 이제 본문의 문학적 정황, 즉 요나

56) 애커맨(J. S. Ackerman)은 히브리 성경에서 '삼킨다'는 단어가 전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물고기는 구원의 수단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atire and Symbolism,' 220–21). 단어의 의미를 분석할 때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의 용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정 구절에서의 정확한 의미는 그 자체의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이 본문에서 물고기는 야훼에 의해 예비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57) T. E. Fretheim, 윗글, 98.

58) J. C. Holbert, 윗글, 70–72.

59) 조휘, 윗글, 27–31.

www.kci.go.kr

가 지금 막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다는 그 정황을 고려하며 요나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1) 상황에 대한 오해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가?

2장에서 요나는 1장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들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한다. 1장 3절에서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음에도 2장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말한다. 또 1장 12절에서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음에도 2장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하였다. 2장의 표현들은 히브리어 수동형인 히필(hiphil)이나 니팔(niphal)형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요나가 자신이 스스로 행한 행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홀버트(J. C. Holbert)의 표현처럼 요나는 '오! 나의 죄(O mea culpa)'를 '오! 그의 죄(O sua culpa)[60]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2장에 나타난 이런 표현이 상황에 대한 요나의 오해를 드러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해석은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4:2)라는 구절이 2장에서 요나가 상황을 '오해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준다고 분석한다.[61]

그러나 이런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상황에 대한 오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상황'은 모두 요나 자신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오해'는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 행동을 마치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될지언정 '오해'는 아니다. 또한 4장 2절에서 요나가 지난 번 도망에 대해 스스로 한 것이라고 확언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2장의 전후에서 요나

60) J. C. Holbert, 윗글, 72.
61) 조휘, 윗글, 27-29.

www.kci.go.kr

가 자기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왜 2장에서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였는지' 설명되어야 한다. 또 만일 그가 정말로 상황을 오해하였다면 어떻게 그 오해가 해소되었기에 이후 4장 2절에서는 그렇게 발언하였는지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을 때 순종하게 되었는지도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임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고 바다에 던지더니 이제 또 나를 가라고 하느냐고 따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2장의 수동태 표현을 '상황에 대한 오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건 '오해'이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해'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2장에 나타난 수동태 표현을 1장과 연결된 문학적 정황에서 분석하면 요나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으로 묘사한 이유가 드러난다. 1장과 2장이 묘사하는 야훼를 향한 요나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1장의 요나는 철저하게 야훼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야훼의 명령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 바다에서 대풍을 만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를"(5절) 때에도 요나는 야훼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장이 "네 하나님께 구하라"(6절)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제비가 뽑힐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잔다. 야훼를 피해 도망가는 그가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야훼를 믿는 믿음 때문일 수는 없다.

물론 이후 그는 자신의 신원을 묻는 사공들의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9절)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 대답이 그가 야훼를 향해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공들이 그의 대답을 듣고 "두려워하여도"(10절) 정작 요나 자신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텍스트에 전혀 없기

www.kci.go.kr

때문이다. 마침내 요나는 더 흉용해지는 파도를 보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12절)고 한다. 그가 대풍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요나가 야훼를 향해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 주석들이 이 때 요나가 야훼께로 돌아섰다고 해석한다. 대표적으로 알렌(Allen)은 요나의 "영적 냉담함이 사라지고 양심이 일깨워졌다"[62]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우선 요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종교의 엄격한 인신제물 금지 규정[63]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기희생적 인신제물이 되기로 선택하였는지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요나의 이 선택이 야훼를 향한 저항의 표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요나서의 문학적 정황이 그런 이해를 뒷받침한다. 우선 스튜어트(D. Stuart)의 설명처럼 이 구절에서 요나의 "냉담한 무관심이 갑자기 진정한 죄의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없다."[64] 또한 요나서의 더 넓은 문맥은 요나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야훼를 향해 불평을 터트리며 충동적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4:3, 8)고 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한다. 그런 그가 야훼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그 길을 가로막는 풍랑을 만났다.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 자신의 길을 바꾸려는 야훼의 의지가 아니겠는가? "바다에 던지라"는 제안은 이런 그의 상황 인식에서 나온 반응이다. 그러니 그것이 자기희생적 동기로 한 말일 수는 없다. 그건 야훼의 주권에 저항하려는 몸짓이다.

---

62) L. C. Allen, 윗글, 210. 스미스(B. K. Smith)는 요나의 대답이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B. K. Smith & F. S. Page, *Amos, Obadiah, Jonah*,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235. 또 엘리슨(H. L. Ellison)은 요나의 선택을 "영적 위대함"이라고 하였다. H. L. Ellison, "Jonah", (EBC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372.

63) 인신제물을 금하는 다음의 구절들을 참조하라. 레위기 18장 21절, 20장 2절, 열왕기하 23장 10–14절, 예레미야 7장 31절, 19장 5절, 32장 5절, 등. 인신제물과 관련하여서는 창세기 22장; 사사기 11장 34–40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하 3장 27절, 미가 6장 7절 등도 연구 대상이다.

64) D. Stuart, 윗글, 463.

www.kci.go.kr

1장에 묘사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의 주권에 저항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내레이터는 1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것은 야훼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그의 '주권'을 강조한다.[65]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신 이도(1-2절), 바다에 대풍을 보내신 이도(4절), 요나가 제비 뽑히도록 하신 이도(7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후 대풍을 잠잠케 하신 이도(15절) 모두 야훼이시다. 1장에 나타난 야훼와 요나의 갈등은 모두 요나가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발생된다. 그는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요나의 요구는 이런 그의 행동의 결정판이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요나가 2장에서 갑자기 야훼를 향해 경건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다. 2장의 텍스트 전체가 '기도'이다. 기도는 야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전형적 행위이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는가? 그건 비록 죽음을 자초한 그이지만 실제로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주권에 대한 요나의 인식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은 아마도 야훼가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순간일 것이다. 요나서 2장 3, 4절에 묘사된 "던지셨다"와 "쫓겨났다"는 수동태 표현은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요나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한 능동적 행위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태로 표현한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며, 비록 그 자신이 "바다에 던져 달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신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는 자

65) 요나서에서 야훼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예비하사(מָנָה 마나)"라는 단어로 계속된다. 야훼는 요나의 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1:17)셨고, "박넝쿨을 준비"(4:6)하셨으며, "벌레를 준비"(4:7)하시고, "동풍을 준비"(4:8)하셨다.

www.kci.go.kr

신이 행한 행위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 행동이 초래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수동태 표현은 상황에 대한 오해라기보다 야훼의 주권과 심판에 대한 그의 인식과 고백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그의 이런 인식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또 다시 표변한다.

2) 교만한 감사인가? 회개하는 감사인가?

이 시가 감사의 기도인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감사의 성질'이 과연 어떤 것이냐이다. 과연 이 기도는 회개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만한 감사이며, 결국 편협한 선민사상을 드러내는 것인가? 요나의 기도에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개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에는 회개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2:4)는 구절은 주요한 검토 대상이다.[66] 요나는 "여호와의 낯"(1:3)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2:4)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이 두 구절에 언급된 '얼굴'과 '눈'이 문자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은유이다.[67] 1장 3절의 "여호와의 낯"은 야훼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이어 나오는 표현이기에 '낯' 즉 얼굴은 그의 '말씀 혹은 명령'의 은유이다. 이것은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3:3)라

66) L. C. Allen,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217. 이 구절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The Heavenly Sanctuary/Temple in the Hebrew Bible* (University of Sheffield, 2002, 미간행), 207–229를 참조하라.

67) D. Stuart, *Hosea-Jonah*, 476.

www.kci.go.kr

는 구절과 대칭시켜 보아도 분명해진다. 그리고 2장 4절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할 때의 '목전'은 구절 자체에서 '자비'를 가리키고 있음이 의미상 자명하다. 그러므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야훼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야훼의 자비'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이다. 시편은 이런 상태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시 31:22)고 표현하였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은 그런 인식에 이어서 표현된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러니 이 말은 다시 주의 임재로 나아가겠다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이해는 이 표현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 반복해서 나타난 범죄와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다는[68] 사실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솔로몬은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주께 돌아와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왕상 8:46-48)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였다. 이 구절을 요나의 기도와 비교하면 병행 관계가 뚜렷해진다. 요나가 말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은 솔로몬이 말한 "범죄함으로 사로잡혀 간 것"과, 이어지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주께 돌아와 이 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병행한다. 그러니 2장 4절의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두 요소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에서와 같이 '범죄와 회개'임이 분명하다.

이 기도의 끝에 언급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9절)라는 구절도 요나의 회개를 암시한다. 우선 요나가 드리겠다고 한 '제사'는 죄인의 회개를 전제하고 드리는 행위이다. 이이서 그는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했다. 서원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68) 스칼렛(W. Scarlett)은 2장을 유대 민족이 바벨론 유수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드리는 구원의 간구로 이해하였다. 그에 의하면 특히 2장 4절의 "쫓겨났을지라도"가 주의 전에서 쫓겨난 바벨론 포로를 나타낸다. W. Scarlett, "The Book of Jonah", *Interpreter's Bible*, vol.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886.

www.kci.go.kr

드리는 말로 하는 약속이다. 그건 일종의 제사행위의 일부이다. 여기서 '갚겠다'는 히브리어 동사 샬람(shalam)은 이미 한 서원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서원은 과거에 이미 한 서원을 미래에도 지키겠다는 그런 서원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나의 회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 기도 이후에 처음과 달리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3:3) 갔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처음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1:3) 다시스로 향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3:3) 니느웨로 향한다. 이러한 변화의 사이에 2장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엘륄(J. Ellul)은 2장의 핵심 주제가 회개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간단하다"[69]고 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할 때,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불순종에 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당연한 듯' 교만하게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의 모습은 자신의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 자만한 모습이라기보다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준 것에 대해 회개하며 감사하는 모습이다. 스미스(B. K. Smith)와 스튜어트(D. Stuart)가 똑같은 영어로 표현하였듯이 "요나는 그가 구원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70] 죽음의 위기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죽음에서 벗어난 구원이 그로 감사하게 만든 것이다.

3) 이방인에 대한 비난: 요나의 선민의식 때문인가?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인가?

2장의 기도 말미에 요나가 이방인에 대해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

---

69) J. Ellul, *The Judgment of Jonah* (Grand Rapids: Eerdmans, 1971), 41.

70) B. K. Smith, 윗글, 252; D. Stuart, 윗글, 479. 똑같은 영어 표현은 Jonah deserved death, not deliverance이다.

www.kci.go.kr

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는 비난임에 틀림이 없다.[71] 이에 반해 1장에서는 이방인 사공들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이 언급되지 않는다. 또 그들도 야훼 신앙을 받아들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나가 여기서 갑자기 그들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한 것은 그의 편협한 선민사상을 드러낸 증거라고 해석된다. 과연 그런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과연 1장이 이방인 사공들을 중립적으로 표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장에 나타난 사공들은 자기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 분명하다. 그들은 대풍이 바다에서 일자 처음에는 "각각 자기의 신을"(1:5) 불렀다. 그들은 요나에게도 "네 하나님께 구하라"(1:6)고 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요나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요나의 정체를 모른다. 그러니 그들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다신교적 개념에 근거하여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구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요나로부터 대풍의 원인이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1:10) 들은 이후에는 그들마저도 야훼를 향해 기도하며, 심지어 야훼를 향해 '주'라고 부른다(14절).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야훼신앙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라거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렘 10:10)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다만 대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대풍을 초래한 그 사람 '요나의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구받는 참 신앙고백이 아니다. 그야말로 두려움에서 비롯된 살기 위한 고백일 뿐이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잔잔해지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

71)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우상숭배에 대한 명령은 두 가지로 주어졌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를 금하는 명령이고(출 20:4; 레 26:1; 신 4:16–23; 신 5:8 등), 다른 하나는 이방의 우상숭배를 따르지 말거나 훼파하라는 명령이다(출 23:24; 민 33:52; 신 7:5; 왕하 10:27 등).

www.kci.go.kr

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1:16). 그러나 이 제사 행위도 그들이 야훼신앙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두려움'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 사공들의 두려움을 묘사하는 경우는 모두 세 번이다. 그들은 처음 대풍이 일자 두려워하였고(5절), 요나로부터 대풍의 사연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며(10절), 마지막으로 대풍이 멈추어 두려워하였다(16절). 이 두려움은 모두 '경외심'(awe)이 아니라 '공포심'(fear)이다. 결국 1장은 이방인 사공들을 중립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의 우상숭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살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신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심지어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할 수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요나는 이방인 사공들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사실, 구약에서 이방의 우상을 "헛것" 또는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관된 방식이다.[72] 그런데 이 본문 내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난의 근거는 단지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2:8)[73]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비난받는 진정한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다. 이방인을 '은혜를 저버린' 이유로 비난함으로 요나는 그들이 야훼의 구원을 체험하고도, 심지어 야훼를 향해 제사와 서원을 드리고도 여전히 그를 숭상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72) 레위기 19장 4절, 사무엘상 12장 21절, 열왕기상 16장 13절, 역대상 16장 26절, 시편 96편 5절, 예레미야 8장 19절, 10장 15절, 51장 17절 등.

73) '은혜'라고 번역된 명사 헤세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즉 헤세드를 '은혜(grace)'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지니게 된 은혜"를 의미하고, 헤세드를 '충성(loyalty)'으로 보면 "이방신을 향해 바치는 충성"이 된다. 거의 모든 한국어 번역은 전자를 택하였다. 여기에 어울리는 영어번역이 NIV의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forfeit the grace that could be theirs이다. RSV의 Those who pay regard to vain idols forsake their true loyalty 라는 번역을 후자를 나타낸다.

www.kci.go.kr

것이 요나가 보기에는 "은혜를 저버린" 일이다.[74]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심지어 이스라엘일지라도 비난받을 일이다. 구약에는 야훼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들의 가혹하고 거친 비난이 수없이 많다. 그러니 이 비난은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는 비난이다. 그들은 야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다시 그들의 헛된 신을 섬겼다. 그야말로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요나는 야훼의 속을 상하게 한 선지자이지만 여기서는 야훼를 저버린 이방인들로 인해 그의 속이 상하고 있다.

이들의 배은망덕에 대한 요나의 비난은 이어지는 그의 고백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그는 이방인들에 대해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한 다음 이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9절)고 하였다. 이 고백은 이방인 사공들이 행한 제사와 서원을 겨냥하고 있다. 요나는 자신이 행한 제사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드린 것이란 표현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여" 드린 제사와 구별하며, "서원을 갚겠다(paying vows)"는 표현으로 "서원을 하기만(making vows)"[75] 하고 은혜를 저버린 그들을 비난한다.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2:9)라는 고백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한다. '주 야훼'(YHWH the Lord) 신앙에서 더 나아가 '구주 야훼' (YHWH the Saviour)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다. 이방인에 대한 요나의 비난은 이런 모든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그 비난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을 향해 드러낸 교만한 인종차별이라기보다 야훼로 말미암아 같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린 것에 대해 비난

74) 물론 이방인들이 탄 배가 위험에 빠진 것은 요나 자신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환란의 원인은 자신이 제공했지만 함께 겪은 환란에서 구원받은 것은 여하튼 야훼 때문이다. 요나는 지금 그 사실을 근거로 야훼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

75) 1장 16절의 이방인 사공들의 서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문장은 동족목적어를 수반한 동사로 단순히 서원을 한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 여기에 반해 2장 9절은 '나의 서원을 완성시킨다'는 결심의 의미이다.

www.kci.go.kr

이다. 자고로 배은망덕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인종여부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변덕스러우나 죽음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해진 요나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을 편협한 선민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그런 모습을 4장에서 니느웨의 구원에 불평을 터트리는 요나의 모습과 연결하여 그것이 요나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에 묘사된 주인공 요나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일관되거나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측불허의 변덕스러운 인물이다. 그의 변덕스러움은 장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하우저(A. J. Hauser)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그의 이름의 뜻을 따서 '도망가는 비둘기'(1장), '기도하고 찬양하는 비둘기'(2장), '순종하는 비둘기'(3장)[76], '화내는 비둘기'(4장)로 설명하였다.[77]

2장에 묘사된 경건하고 진실한 요나의 모습이 이야기의 흐름에 비추어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요나'를 묘사하는 책 전체의 구도에서 보면 오히려 2장의 그런 묘사는 주인공의 변덕스러움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불순종하고 불평 많은 요나이지만 소위 임사체험을 하자 경건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문학적 정황은 죽음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요나의 기도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다른 장에 묘사된 요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요나의 기도에

76)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3:3) 일어나 니느웨로 간다. 그러나 그는 삼일 길인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3:4) 외친다. 어떤 이들은 이 표현을 근거로 요나가 삼일 길 중 하루 길만 행했기에 여전히 내키지 않은 순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니느웨 사람들의 신속한 반응을 의미하기에 '하룻길'(RSV, a day's journey)보다 '첫날 길'(NKJV, on the first day's walk)이 더 문맥에 어울린다.

77) A. J. Hauser, 윗글, 22–34.

www.kci.go.kr

나타난 그의 경건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한 번의 고백을 지속할 만큼 근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드린 이후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여 기별을 전한다(3장).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자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트린다(4장). 심지어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4:3)이라고 한다. 참으로 예측불허의 사람이다. 그의 심리는 전혀 일관되지 않다. 특별히 그는 박 넝쿨(qiqayon-plant) 때문에 기쁨과 불평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4:6-8). 거의 조울증 수준이다. 그리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4:8)고 한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다시 그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 그가 1장에서처럼 얼마나 편협한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2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일관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성격에 대한 극적 효과를 더하게 된다. 2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과 그 외의 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결코 '변함없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문학적 정황으로 보면 요나서 전체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야훼는 일관되게 보편적인 자비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요나는 변덕스럽고 인종차별적으로 묘사한다. 물론 이 책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가 인간의 회개에 따라 야훼가 "뜻을 돌이키"(3:10)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인공 '요나의 눈에 비친' 야훼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 그는 야훼가 뜻을 돌이키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4:2)라고 불평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야훼의 바뀌지 않으심에 대한 요나의 불평이다. 그는 야훼가 이렇게 하실 것을 고국에

www.kci.go.kr

있을 때부터 '이미' 알았다고 말한다. 주목할 것은 요나의 불평이 야훼의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요나는 변하지 않는 야훼의 성품 때문에 그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불평한다.[78] 이런 이유로 쿠퍼(A. Cooper)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찬양"[79]한다고 하였다. 요나의 변덕스러움은 이런 문학기법으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5. 나오면서

본 연구는 요나의 기도(욘 1:17-2:10)를 이제 막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최종본의 문학적 정황에서 분석하며 거기에 묘사된 요나의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그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해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1장에서 요나가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한 것은 자원하여 인신 희생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야훼의 주권에 몸을 던져 도전하고 저항한 것이다. 둘째, 이런 그가 2장에서 자기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한 것은 그를 구원한 야훼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이런 배경에서 드린 기도는 결코 바리새인적 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기도이다. 넷째,

---

78)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 계획을 바꾸신 것인가? 아니면 '계획을 바꾸는 것' 자체가 원래 계획인가? 요나가 받은 최초의 명령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1:2)는 명령은 조건적인 기별(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인지 무조건적 심판 기별(니느웨는 멸망하리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요나가 전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4)는 기별은 무조건적 멸망의 심판을 외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 '무너지리라'고 번역된 동사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이 단어는 '무너진다(destroyed)'로 번역되기도 하고(창 19:21, 25, 29; 신 29:22; 암 4:11; 애 4:6), '변화된다(transformed)'로 번역되기도 한다(출 14:5; 삼상 10:6, 9; 렘 31:13; 느 13:2; 호 11:8). 첫째 의미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이고 둘째 의미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리라'가 된다. 중세 유대 랍비들은 이 의미를 애매하게 한 것 자체가 본문의 의도라고 해석하였다. 참고. J. M. Sasson, 윗글, 234.

79) 쿠퍼(A. Cooper)는 요나서 묘사된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은혜로운 사랑의 행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은 찬양의 주제가 된다고 하였다. A. Cooper, "In Praise of Divine Caprice: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Jonah," P. R. Davies & D. J. A. Clines (eds),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144–63, 특히 152.

www.kci.go.kr

이방인에 대한 그의 비난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야훼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의 배은망덕에 대한 것이다. 2장에 묘사된 요나에 대한 이런 이해는 분명히 요나서 이해에 새로운 빛을 던지며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가 되리라 믿는다. 2장에 묘사된 요나는 경건하고 정직하다. 그러나 요나에 대한 이런 이해가 결코 요나를 위한 변호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가 거기서 그렇게 경건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요나서 전체에서는 그의 변덕스러움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다. 요나는 죽음을 이기고 나온 경험도, 그렇게 경건하고 정직하게 드렸던 기도와 고백도 어쩌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6. 참고문헌

김상래, "아이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 만인가?—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72-96.

박철우, "MT 소예언서의 삼단양식적 구조와 요나서의 문학적 신학적 기능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47집 (2013년 3월), 208-237.

조휘, "문학적 정황에서 읽는 요나의 기도(욘 1:17-2:10)", *Hermeneia Today* (2005년 봄 30호), 18-38.

Ackerman, J. S., "Satire and Symbolism in the Song of Jonah," Baruch Halpern & Jon D. Levenson (eds.), Traditions in *Transformation: Turning Points in Biblical Faith* (Winona Lake: Eisenbrauns, 1981), 213-46.

Alexander, T. D., "Jonah and Genre", *Tyndale Bulletin* 36 (1985), 35-59.

Allen, Leslie C., *The Books of Joel, Obadiah, Jonah and Micah* (NICOT; Grands Rapids: Eerdmans, 1976).

www.kci.go.kr

Anderson, B. W., *Out of the Depth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Andrew, M. E., "Gattung and Intention of the Book of Jonah", *Orientalia* 1 (1967), 13-18, 78-85.

Band, A. J., "Swallowing Jonah: The Eclipse of Parody", *Proof Texts* 10 (1990), 177-95.

Bewer, J. A., T*he Book of the Twelve Prophets* (ICC; Edinburgh: T. & T. Clark, 1961).

Bickerman, E. J., *Four Strange Books of the Bible: Jonah, Daniel, Koheleth, Esther* (NY: Schocken Books, 1967).

Bolin, Thomas M., *Freedom beyond Forgiveness: The Book of Jonah Re-examined* (JSOTSup 23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Brenner, Athalya, "Jonah's Poem out of and within its Context", Ph. R. Davies & D. J. A. Clines (eds.),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JSOTSup 144; Sheffield: JSOT Press, 1993), 183-92.

Christensen, Duane L., "Narrative Poetic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nah", E. R. Follis (ed.), *Directions in Biblical Hebrew Poetry* (JSOTSup 40; Sheffield: JSOT Press, 1987).

_____, "The Song of Jonah: A Metrical Analys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 (1985), 217-31.

Clements, R. E., "The Purpose of the Book of Jonah", G. W. Anderson, *et al* (ed.), *Congress Volume: Edinburgh 1974* (VTSup 28; Leiden: E. J. Brill, 1975), 16-28.

Cohn, G. H., "Book of Jonah", *Encyclopedia Judaica* X, 170-74.

Cooper, A., "In Praise of Divine Caprice: The Significance of the

www.kci.go.kr

Book of Jonah", P. R. Davies & D. J. A. Clines (eds), *Among the Prophets: Language, Image and Structure in the Prophetic Writings*, 144-63.

Craig, K. M., "Jonah in Recent Research," *Currents in Research* 7 (1999), 97-118.

_____, "The Poetics of the Book of Jonah: Toward an Understanding of Narrative Strategy" (Ph. D. dissertation,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9).

_____, *A Poetics of Jonah*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3).

_____, "Jonah and the Reading Proces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7 (1990), 103-14.

Crouch, Walter B., "To Question an End, to End a Question: Opening the Closure of the Book of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62 (1994), 101-12.

Davies, 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JSOTSup 148; Sheffield: JSOT Press, 1992).

Day, J.,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nah", *Oudtestamentische Studiën* 26 (1990), 32-47.

Eagleton, T., "J. L. Austin and the Book of Jonah", R. M. Schwartz (ed.), *The Book and the Text: The Bible and Literary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1990), 231-36.

Eissfeldt, 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1974).

Ellison, H. L., *Jonah* (EBC 7; Grand Rapids: Zondervan, 1985).

Ellul, Jacques, *The Judgment of Jonah* (Grand Rapids: Eerdmans, 1971).

Emmerson, G. I., "Another Look at the Book of Jonah", *Expository*

www.kci.go.kr

Times 88 (1976), 86-87.

Fretheim, T. E., *The Message of Jonah: A Theological Commentary*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77).

Hauser, A. Jon, "Jonah: In Pursuit of the Dov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4 (1985), 21-37.

Holbert, J. C., "Deliverance Belongs to Yahweh!: Satire in the Book of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1 (1981), 59-81.

Hoop, R. de, "The Book of Jonah as Poetry: An Analysis of Jonah 1:1-16", Willem van der Meer & Johannes C. de Moor (eds.), *The Structural Analysis of Biblical and Canaanite Poetry* (JSOTSup 74; Sheffield: JSOT Press, 1988), 156-71.

Houk, C. B., "Linguistic Pattern in Jon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7 (1998), 81-102.

Johnson, A. R., "Jonah 2.3-10: A Study in Cultic Phantasy," in H. H. Rowley (ed.),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inburgh: T. & T. Clark, 1957), 82-102.

Kissling P., *Reliable Characters in the Primary History: Profiles of Moses, Joshua, Elijah and Elisha* (JSOTSup 22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LaCocque, A. and Lacocque, P.-E., Jonah: *A Psycho-Religious Approach to the Prophet*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0).

Landes, G. M., "The Canonical Approach to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Prodigy and Problem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20 (1980), 32-39.

_____, "The Kerygma of the Book of Jonah", *Interpretation* 21 (1967), 3-31.

www.kci.go.kr

Levine, Etan, "Jonah as a Philosophical Book",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6 (1984), 235-45.

Limberg, J., *Jon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1993).

Mather, J., "The Comic Art of the Book of Jonah", *Soundings* 65 (1982), 280-91.

Miles, J. A., "Laughing at the Bible: Jonah as Parody", *Jewish Quarterly Review* 65 (1974-1975), 168-81.

Müller, J. G. A., "Jona: Eine moralische Erzählung" (*Memorabilien;* Leipzig: Cruisius, 1794).

Orth, M., "Genre in Jonah: The Effects of Parody in the Book of Jonah", William W. H., et al (eds.), *The Bible in the Light of Cuneiform Literature* (ANETS 8; Lewiston: Edwin Mellen, 1990), 257-81.

Payne, R., "The Prophet Jonah: Reluctant Messenger and Intercessor", *Expository Times* 100 (1989), 131-34.

Person, R. F., *In Conversation with Jonah: Conversation Analysis, Literary Criticism, and the Book of Jonah* (JSOTSup 22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Rosenberg, J., "Jonah and the Prophetic Vocation", *Response* 22 (1974), 23-26.

Salters, R. B., *Jonah & Lamentations*, (Sheffield: JSOT Press, 1974).

Sanglae Kim, *The Heavenly Sanctuary/Temple in the Hebrew Bibl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2002, 미간행).

Sasson, J. M., *Jona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Commentary, and Interpretation* (London: Doubleday, 1990), 155-56.

Scarlett, W., "The Book of Jonah", (Interpreter's Bible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www.kci.go.kr

Scott, R. B. Y., "The Sign of Jonah", *Interpretation* 19 (1965), 16-25.

Smart, J., *The Book of Jonah,* (Interpreter's Bible 6;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Smith, B. K. & Page, F. S., *Amos, Obadiah, Jonah,*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Trible, Ph. L., *Rhetorical Criticism: Context, Method, and the Book of Jon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_____, "Studies in the Book of Jonah", (Ph.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63).

VanGemeren, W.,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 1990).

Walsh, Jerome T., "Jonah 2.3-10: A Rhetorical Critical Study", *Biblica* 63 (1982), 219-29.

Warshaw, T. S., "The Book of Jonah," Gros Louis, *et al* (eds.), *Literary Interpretations of Biblical Narrative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2), 191-207.

Woodard, B. L., "Death in Life: The Book of Jonah and Biblical Tragedy", *Grace Theological Journal* 11 (1991), 3-16.

Zimmerman, F.,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Book of Jonah", *Judaism* 40 (1991), 58-89.

검색어

요나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www.kci.go.kr

The Understanding of Jonah's Character Described in Jonah's Prayer (Jon 1:17-2:10)

Sanglae Kim,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Jonah's prayer in 1:17-2:10 in the literary context of final-form of the text as a prayer of someone who just escaped a close death call, and looks closely at the personality of Jonah described in the given text. Through such exegesis, following new understandings were deducted. Firstly, the reason why Jonah asked the sailors to throw in down the sea is not because it was a voluntary human sacrifice, but a challenge and rebel against YHWH's authority. Secondly, the reason why described his actions as done according to God in chapter 2 is because he recognized the absolute authority of YHWH who saved his life. Thirdly, the prayer given in such background is certainly not a boastful prayer, but a prayer of repentance and thankfulness. Fourthly, his criticism against the gentile is not about idol worship, but about their ungratefulness towards God's grace. I believe such understanding of Jonah's description in chapter 2 illuminates a new light in understanding the Book of Jonah, and will contribute in expanding the horizon. Jonah`s Prayer portrays Jonah as devout and truthful. Nonetheless,

www.kci.go.kr

this image of Jonah accentuates his caprice remarkably, as observed throughout the context of the book of Jonah.

Keywords

Jonah
Prayer of Jonah
Jonah chapter 2
Jon 1:17-2:10
Idea of Chosen People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

www.kci.go.kr